

“배움에는 나이 없다”... 서울형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서울시교육청-강동송파지원청 고령층 문해교육 학습자까지 넓혀 안전체험·원어민 영어교육 등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중심이던 교육 인프라를 고령층 문해교육 학습자까지 확장하며, 안전체험부터 원어민 영어교육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교육 모델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문해교육 학습자 체험학습 연계 운영’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연계해 학령기 학생 중심 교육서비스를 평생교육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



은 학생교육원이 보유한 안전·외국어 교육 전문 인력과 안전체험관, 가족야영지 등 인프라를 학생뿐 아니라 평생교육 학습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실 이론 수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문해교육에 현장 체험 학습을 접목해 고령층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

공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사업의 핵심인 ‘평생교육 문해교육 학습자 체험학습 연계 운영 사업’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1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학생교육원 본원과 경기도평균 소재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에서 진행된다.
학생교육원은 체험학습 분야별 전문

지도자와 원어민 강사 등을 투입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체험관·언어체험관·가족야영지(통나무집) 등 교육 공간과 차량, 고령자 식이 특성을 고려한 식단까지 지원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관내 문해교육 기관과 협력해 고령층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콘텐츠 적합성 검토와 참여기관 모집 등 사업 전반을 함께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 학습자의 신체·연령 특성을 반영해 실생활 중심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초등과정은 ▲지진·화재대피훈련 ▲고령자 맞춤형 심폐소생술 ▲파라코드 만들기 ▲뉴스포츠(콘솔 수업) ▲캠핑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중·고과정은 ▲공항 입국심사 체험 ▲마트에서 물건 사기 등 해외여행 상황을 활용한 원어민 영어체험 ▲목공 작품만

들기 ▲태도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업이 재난 대응에 취약한 고령층 학습자의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및 다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 문자 해독 중심이던 성인 문해교육이 안전·언어·체험 활동까지 확대되며 평생학습의 외연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참여자 의견과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운 학생교육원 원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교육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생 학비 부담 2년새 35만원 감소

지난해 정부재원 장학금 4.9조 학자금 지원 대상·범위도 늘려

지난해 대학생 1인당 정부 학비 부담 경감액이 263만원으로 집계되며 2년 사이 약 35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2자녀 가구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2000억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총 4조3000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9000억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258억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부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도 2년 사이 35만원 늘었다. 실제 지원 대상 학생 기준으로 보면 체감 경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학자금 지원 확대 흐름은 올해도 이

어진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자면제 지원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학부생 등록금 대출은 기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서 10구간 이하로 확대됐고, 대학원생은 기존 4구간 이하에서 10구간 이하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생활비 대출 역시 대학원생 기준 지원 대상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했다.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도 추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1~5구간 학생에게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이자를 면제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1~6구간까지 확대되고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개선된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킨텍스 K-UAM 실증센터 구축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고양시가 킨텍스 일대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거점을 조성하며 수도권 UAM 상용화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킨텍스 2단계 계획 H1 지역 약 1만5000㎡ 부지에 K-UAM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증센터는 도심항공교통 기체가 실제 도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기반시설로 조성된다.

도심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기항공기를 활용해 도심 상공을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단계별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수도권 도심 실증 구간과 연계해 킨텍스 일대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K-UA



고양시 UAM 실증 인프라 조감도.

M 부지사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킨텍스 일대에는 버티포트와 여객터미널, 격납고, 운항 통제시설, 정비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버티포트는 도심항공교통 기체가 이착륙하는 핵심 시설이다. 고양시는 올해 안에 이착륙장을 먼저 구축해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내년까지 여객터미널과 정비시설을 갖춘 종합 버티포트 형태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천문화예술회관 ‘황.금.토.끼’ 15일 개막

시립예술단 4개 단체 야외 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인기 야외 공연인 ‘황.금.토.끼’가 올해는 장소를 옮겨 시민들과 만난다.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끼 있는 무대’라는 의미의 ‘황.금.토.끼’는 무료 공연으로, 올해는 인천시립예술단 4개 단체의 알찬 무대로, 단체객석과 호흡

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압도적인 몰입감과 생생한 현장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의 시작은 15일 인천시립합창단의 ‘멜로디 속 한 장면’이라는 주제 아래,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우리의 꿈’, 영화 ‘토이스토리 2’의 ‘When She Loved Me’를 비롯해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 친숙한 음악들을 합창으로 들려준다.

6월과 7월에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6월 5일 금관 앙상블 ‘브라스 판타지아’ 7월 24일에는 섬세한 ‘목관 오중주’로 한여름 밤의 클래식 선율을 전한다.

인천시립무용단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국가 무형유산 전통춤 이수자들의 멋진 춤사위 ‘전통의 숨, 이어온 몸짓’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의 주목할 만한 것은 독무 중심으로 구성돼 전통춤의 깊이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오늘의 날씨
5월 12일 (화)
음력 : 3월 26일

수도권 날씨
15~2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4/22, 동두천 14/22, 가평 13/22, 파주 14/23, 서울 15/22, 양평 14/22, 수원 14/21, 용인 14/21, 평택 14/21, 백령도 11/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죽기를 기다리는 감옥”...노벨평화상 모하마디, 이란 교도소 참상 폭로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접근 금지에도 영상 찍으려다 ‘참변’ /사진 뉴시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이틀간 장거리 공격 자제...러, 전면전 복귀시 맞대응”
▲도교 서점서 책 훑친 40대 한국인...7년간 1만권·5400만원어치 되팔아

▲WHO “한타바이러스 노출자 42일 격리 권장...美 완화 조치 우려”
▲美 한국계 영 김 의원, ‘中 대만 침략 저지 법안’ 발의